첫번째로, 기간계는

새로운 솔루션 도입 전 고객이 **이전에 사용하던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두번째로, 계정계는

금융권의 다양한 시스템 중 **고객의 거래를 처리하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특히 개인/법인/기타 고객들이 가진 '통장'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금/출금/계좌이체/지로 신규개설/폐쇄 등의 전반적인 금융업무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은행 내 시스템의 여러 범주 가운데 가장 거대하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세번째로, 정보계는

계정계가 고객의 거래를 관리한다면 정보계는 **거래의 '기록을 관리하고 기록의 '통계'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보계 시스템은 기록을 바탕으로 예측, 성과측정 결산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흔히 데이터웨어하우스라고 부르는 시스템이 정보계 시스템의 중심입니다. 정보계에서 데이터로의 접근성에 대한 속도가 중요시되며 DW에 비해 정보를 저장하는 기간이 짧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외계는

각 금융기관의 **대내외 망을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CD공동망, 타행환, 전자금융, 사이버증권, 기업뱅킹, 신용정보 등의 업무를 가능하게 하며, 디리아의 핵심 기술이기도 하지요.

계정계

코어뱅킹(Core Banking)이라고도 합니다.

영문 그대로 핵심이 되는 은행업무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 업무라 함은 (금융권 종사자분들이나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분은 다 아시겠지만)

고객 신규/해지 등의 고객업무, 계좌 신규/해지/입금/출금/이체 등의 수신업무, 대출관련 여신업무, 외환업무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정고객, 수신, 여신, 외환 그리고 (사이트 마다) +a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금융(인터넷 뱅킹, CD/ATM 등) 업무는 계정계로 가기도 하고, 단위업무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정보계

계정계 업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행의 업무라고 한다면, <mark>정보계 업무는 계정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처리 업무</mark>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업무로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이 있습니다.

고객의 실적을 평가하여 등급을 산정하고, 마케팅을 하며,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하는 업무입니다.

IT에서는 '정보성 업무'라고 하며, 흔히 '돈'과 관련없는 업무라고도 표현합니다.